설교의 맛을 내는 예화13

[겸손 · 교만]

이웃을 위한 겸손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있다. 그는 앨라배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그 지역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그가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려니 해서 멈춰 세우고 몇 달러 줄 테니 장작이나 패달라고 요청했다.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녀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 주었다.

일이 다 끝나 그가 돌아간 후 그 집 흑인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 주었다.

그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백배 사죄했다.

그러자 부커 워싱턴 총장은,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 기쁜 일이지요"하며 위로를 했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나를 몰라보느냐는 등 내가 누구냐는 등 하며 한껏 난리를 치고도 남을 상황이었을 텐데도 그는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정말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신다.

본지는 위 글을 펴낸곳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펴낸곳 크리스천리더 / 출판기획팀 지음)

건강칼럼 콘밀(corn meal)과 옥수수 가루(masa flour)와 닉스타말 과정

옥수수를 미국에서 콘(corn)이라 부르지만, 본래 corn 이라는 영어 단어는 옥수수라는 뜻보다 밀, 호밀, 귀리, 옥수수 등의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곡식(곡물)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 성경말씀 눅 6:1, 마 12:1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KJV 영어성경에서 〈밀밭〉과 〈이삭〉을 각각 〈the corn fields〉 과 〈the ear of corn〉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corn은 옥수수가 아니라 곡식을 의미한다. 물론 현대식 영어인 NIV 성경에서는 corn 대신에 grain으로 표기한다.

영국식 영어권에서는 옥수수를 스페인에서 유래된 용어인 메이즈(maize)라 부르고, 학계에서도 옥수수를 maize로 표기하고 있다 (영국에서 corn은 밀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귀리이고 독일에서는 호밀이다). 또한, 우리말 '옥수수 가루'를 영어로는 corn meal 또는 corn flour로 표기하지만, 나라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래, 콘밀(corn meal)은 옥수수 자체를 거칠게 갈아 만든 옥수수 가루를 뜻하며, 주로 옥수수 죽으로 쑤어 먹거나 튀김옷으로 사용된다. 사실 국내에서는 콘밀의 수요가 적어서 구하기 쉽지 않은 재료이다. 이와 달리 옥수수 알갱이 전체를 곱게 제분한 가루를 corn flour라 부른다. 한편, 시판하는 옥수수 원료제품 중에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알파 옥수수 가루가 있다. 이것은 옥수수를 볶거나 쪄서 한번 익혀 만든 것으로, 호화(糊化; 젤라틴화)된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알파화라고도 부르는 호화(젤라틴화) 과정을 거치면 소화가 잘 되는 옥수수 내의 전분 구조로 바뀌어진다.

한편, 중남미 인디언들은 전통적으로 옥수수를 석회수의 알칼리 용액에 담군 후에 밀가루같이 고운 옥수수 가루 (이것을 때로 corn flour로 부르기도 하지만, masa flour로 부르는 것이 더 확실한 명칭이다)를 만들었다. 이 과정을 닉스타말화(nixtamalization)라고 부른다. 이러한 닉스타말 과정을 거친 옥수수 가루(masa flour)를 섭취하면, 옥수수를 통한 비타민 B3 (니아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닉스타말하지 않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섭취하게 됨으로, 수많은 서구사람들이 비타민 B3 (니아신) 결핍으로 펠라그라 질병에 희생된 참혹한 역사가 있다.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습득하게 되었는지 저들의 지혜에 탄복할 뿐이다. 기아 상태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닉스타말하지 않은 옥수수만을 주식으로 섭취할 경우 펠라그라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옥수수 토르티야는 반드시 닉스타말 과정을 거친 마사 옥수수 가루 (masa flour)를 사용한다. 참고로, 옥수수 전분(corn starch)과 옥수수 가루(masa flour)는 전혀 다른 식재료이다. 옥수수 전분은 옥수수 씨눈(배아)을 제거하고 배유 부분만 분리한 다음, 제조공정을 거쳐 만든 녹말가루이기에 옥수수 가루와는 성분 자체가 다르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심화예화 〈주제별 말씀묵상〉_01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인도2

환상 중에 깨달은 은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암2:10

중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청년이 20대에 중한 병을 얻어 사형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는 목회자로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였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가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혔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렸다. 주님께서는 "그 바위를 치워라,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라"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나갔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평생토록 귀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

본문의 묵상을 위한 주제어

1. 내가 너희를:오늘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2. 광야-인도하고:역경의 환경에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3. 땅-차지하게:가질 수 없는 것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기도 : 먼저 간구하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옵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한치호 목사 지음/선교횃불)

선교칼럼 87

"이란, 이슬람의 신정정치냐 일어나는 사자냐?"-1

장찬익 선교사
아일레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을 시작으로 지난 46년 동안 신정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쿠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지난 10여년 동안 핵을 개발해 왔고 완성되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수 없이 언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0 퍼센트까지 핵을 개발하였고 90 퍼센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위험을 느끼고 먼저 선제공격을 하기로 하고 6월 13일부터 선제공격을 하여 주요시설들을 파괴하고 6월 24일에 휴전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 전쟁이 남긴 결과는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제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란의 신정정치와 일어서는 사자.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의 미션을 "일어서는 사자(The rising lion)"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사자이기 때문일까요? 6월 13일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무너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란을 정복할 것이니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해서 테헤란을 떠나 외곽으로 피신하였고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전쟁의 불안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전의 아날로그 공격이 아니라 최첨단 디지털 전쟁으로 목표물만 정조준하여 정밀타격하는 공격을 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미국의 최첨단 디지털 공격 수준에 놀라워 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었고 우라늄 핵개발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해당되는 군장성들과 영구원들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피격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신정정치는 그대로 신정정치체제이지만 하메네이가 일주일 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온건파 대통령 측과 군 장성 측과 종교지도자 강경파 측 사이에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1979년 이전의 정권에서 왕자로 지냈던 팔레비왕조의 왕세자입니다. 그는 파리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란은 지난 46년 동안 이슬람의 신정정치로 전혀 발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고립되고 퇴보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이란의 이전시대의 국기를 보여 주었는데 그 국기 안에는 떠오르는 태양과 태양 앞에 일어서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의 미션으로 부르는 "일어서는 사자"와 오버랩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의 신정정치로 갈까요 아니면 사자가 다시 일어서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회복될까요?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란은 1979년에 호메이니의 이슬람혁명으로 이슬람정권이 시작되면서 기독교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10여년 전에 이란의 현지인 목사님이 5명이 계셨는데 어느새 몇 명은 사라지고 지금은 한 두분만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에 크게 부흥해서 현재 1백 5십만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음호에 이어서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학년도 총회신학 신 · 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함.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목제도 있음			

통신과정

1. 시간,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명자는 통신으로 전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2. 능력별로 이수하므로 조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입학가능! 실패, 학비, 나이 학력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세요!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 · 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척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